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가속화

남원시, 19일 ‘제2회 남원발전포럼’ 서 설립 경제성·향후 발전방안 등 논의

남원시는 오는 19일 오헤브데이 호텔 리벤더홀에서 제2회 남원발전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1부 협약식과 2부 정책 세미나로 진행되며, 전국경찰직장협의회와의 업무협약과 제2중앙경찰학교(이하 학교) 설립 필요성과 발전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학교와 경찰수련원 등 경찰 관련 기관 유치를 위해 전국경찰직장협의회와 남원시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복지 향상을 지원할 지역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정책세미나에는 전북특별자치도, 한국경찰학회, 남원발전연구소 관계자들이 참여해 △학교 설립의 경제성 △경찰특화도시 조성 필요성 △향후 발전방안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경찰청은 학교의 최종 입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그 결과는 오는 11월 발표될 예정으로, 남원시는 포럼을 통해 지역의 준비 상황과 강점을 전국에 알리고, 최종 유치를 위한 공감대 확산과 지지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남원은 영호남의 중심에 위치해 동서 화환과 상생발전을 상징하는 거점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며, 이는 정부의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국정목표와도 맞닿아 있다.

정차권도 학교 부지 선정과 관련해 “공정한 공모 절차를 통해 최적의 입지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특정 지역에 치우침 없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시는 이러한 원칙 속에서 최적지로

서의 강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 같은 공정경쟁 구도 속에서 남원 후보지의 입지 여건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후보지로 제시된 운봉 부지는 총 166만㎡ 규모의 100% 국유지로, 계획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돼 별도의 행위 제한이 없다. 특히 국유지 활용을 통한 예산 절감과 신속한 사업 추진 측면에서도 정부의 재정 건정성 및 국유재산 효율화 정책에 부합하는 최적의 입지로 평가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포럼은 학교 유치와 경찰특화도시 조성을 향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경찰 공무원들의 안정적 교육과 복지 향상은 물론, 국가균형발전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민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한국관광정책대상 관광마케팅 부문 ‘대상’

전통 장문화와 관광자원 재해석

순창군이 지난 15일 한국관광정책연구학회가 주관한 ‘2025 제3회 대한민국 관광정책대상’에서 관광마케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관광정책대상’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우수한 관광정책을 발굴하고 선정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상 중 하나로, 정책의 혁신성, 실행 가능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 기관을 결정한다.

이번 수상에서 순창군은 전통 장 문화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이를 다양한 관광 콘텐츠와 연결시켜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은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23년 출범한 ‘순창발효관광재단’을 중심으로 진행된 △발효문화



순창군이 지난 15일 한국관광정책연구학회가 주관한 ‘2025 제3회 대한민국 관광정책대상’에서 관광마케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관광 마케팅, △순창장류축제 개최, △장류 캐릭터 및 굿즈 개발, △디지털 홍보 콘텐츠 제작 등 다각적인 전략이 돋보였다.

아울러, ‘순창 떡볶이 페스티벌’ 개최,

관광재단과 지역 내 다양한 사업체 간의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는 점도 수상의 주요 배경 중 하나로 꼽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치매 극복의 날 기념식 개최

남원시는 17일 오후 2시,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치매 극복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치매 극복의 날은 매년 9월 21일로, 1995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알츠하이머병협회(ADI)와 함께 치매 환자 돌봄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 세계적으로 지정

한 날이다.

시는 치매 정책 발전과 치매 인식 개선에 앞장선 기관·단체와 치매 환자 곁에서 돌봄을 실천한 개인 등 총 8명의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시는 9월 15일부터 19일까지를 ‘치매 극복 주간’으로 정하고, 시민들이 자주 찾는 약국·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4개소에서 ‘추억의 퀴즈 한바탕’, ‘복



불복 뽕기’ 등 체험 행사와 치매 이동 상담실을 운영해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기재부, 자매결연 후 첫 교류

임실군과 협약식 이후 지역 방문해 워크숍 가져

임실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기획재정부가 협약식을 끝내자마자 곧바로 지역을 방문, 워크숍을 가지면서 양 기관 간의 신뢰살에 더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를 열어주고 있다.

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운영지원과 직원 15명은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임실군에서 워크숍을 갖고 자매결연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광지를 찾아 지역의 매력을 체험하는 한편, 치즈 등 지역 농특산물 구매 등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마중물 역할을 했다.

양 기관의 상생 협력을 몸소 실천하는 차원에서 이뤄져 이번 방문은 지난 11일 체결된 ‘지방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를 위한 자매결연 협약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기획재정부 운영지원과 직원들은 임실군의 주요 관광지와 향토 음식을 직접 체험하며 임실의 자연과 문화에 대한 깊은 인상을 받았다.

방문 첫날인 15일 직원들은 고려와 조선의 건국 설화가 깃든 왕의숲 성수산 상이암을 둘러보고, 현재 추진 중인 왕의숲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



으며 임실의 미래 관광 비전을 공유했다. 이후 지역 식당에서 만찬을 즐기고 성수산 자연휴양림에서 숙박하며 임실의 청정한 자연을 만끽했다.

둘째 날인 16일에는 한국 관광의 별로 선정된 바 있는 임실치즈테마파크를 방문해 직접 치즈를 만들고 테마파크의 이국적인 정취를 즐겼다.

이어 최근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옥정호 출렁다리와 봉어섬 생태공원을 찾아 임실군의 뛰어난 관광 경쟁력을 확인했다.

군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임실군과 기획재정부, 국민연금공단 등과의 상호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시민과 함께하는 국제 장작가마 예술제’ 성료

남원시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남원시민도예대학 개관 26주년 기념 ‘시민과 함께하는 국제 장작가마 예술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도예가와 시민이 함께 어우러져 전통과 현대, 지역과 세계가 만나는 도자 축제의 장으로 마련, 남원시가 주최하고 남원시민도예대학과 한국도자예술협회가 주관했으며, 국제도예협회(icc) 소속 작가들을 비롯해 미국 5명, 페루 1명, 중국 3명 등 해외작가와 국내 작가 30여 명, 지역 작가 10여 명이 참여해 국제적 교류의 의미를 더했다.

첫날인 12일에는 남원용기장 장태성 명장, 중국의 양성진 작가, 산바오링미술관 임계(林峯) 관장이 특별강연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12일부터 14일까지는 국내외 작가와 시민, 졸업생이 제작한 100여 점의 작품이 30시간에 걸쳐 소상했으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장태성 명장과 함께한 응기 체험 프로그램과 교육 활동도 진행됐다.

‘도자, 세계를 담다’라는 주제로 열린 전시에서는 이진욱 작가의 〈달항아리〉를 비롯해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 50여 점이 선보였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의료원, 환자안전·감염관리 주간 행사 개최

남원의료원은 ‘세계 환자 안전의 날’을 맞아 지난 15~17일 2025년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 주간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보호자, 직원 등 직접 참여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감염관리 체험부스(올바른 손위생 6단계 체험 등) △순조염도 측정(ATP기 이용) △개인보호구 착용·탈의 퀴즈풀기 △감염취약시설 및 전직원 감염관리



교육 △감염관리 퀴즈풀기 등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N치즈축제 관광객 모객 여행사 인센티브 특별 지원

임실군이 대표 축제인 2025 임실N치즈축제 기간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축제는 기존 4일에서 5일로 하루 늘려 오는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 동안 진행하며, 축제장 및 관광지 방문, 식사 등 지원 조건을 충족하고 일정 인원 이상 유치 시 버스 한 대당 50만원이 지원된다.

임실N치즈축제 인센티브 지원 대상은 내국인 30인 이상 전라북도 외 지역 여행사에 한하며, 외국인 15인 이상 유치 시 전라북도 포함 전국 여행사 지원 조건이며, 축제장 식사 1식 및 기존 체류시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변경하여 더 많은 볼거리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여행사는 임실군에 사전 계획서를 제출하고, 여행 종료 후 15일 이내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행복순창물’ 추석 특가 이벤트 실시

순창군이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이달 26일까지 지역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행복순창물’에서 ‘추석 장보기 민생 회복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명절 기간 동안 급증하는 장보기 수요에 발맞춰, 군민과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순창 농특산물의 판매 촉진과 판로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행사 기간 중 행복순창물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 선착순 1,000명에게는 2,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

또한 임점 업체의 전 상품을 대상으로 건당 3,000원 할인 혜택도 제공되며, 총 4,000건의 구매에 대해 할인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총 지원 예산은 1,400만 원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순창군은 신규 회원 유입과 함께 임점 업체들의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행사 종료 후에는 고객 만족도 조사와 성과 분석을 통해 소규모 운영 방향도 재정비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